

어머니의 땅 지리산을 품다

이호신 작가 진경순례전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은 경상남도, 전라남·북도를 품고 있는 백두대간의 마지막 얼굴입니다. 백두산이 아버지라면 지리산은 어머니입니다. 천왕봉을 중심으로 흘러내리는 골짜기와 계곡, 너른 들녘과 맑은 강은 겨레의 젖줄이며, 민족의 대서사시입니다. 이 산 아래에서 역사의 바람이 불고 문화의 꽃이 피어납니다. 유난히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산이요, 온갖 삶을 다 받아주고 아픔을 삭여 주는 어머니의 품속 같은 산입니다”

실사상 쌍계사 화암사 등

자연·인문·문화유산 담아내

4월 4일~28일 아라아트센터

지리산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호신 작가의 전시가 4월 4일~28일 종로구 견지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작가는 '어머니의 땅 지리산 진경순례'전을 통해 지리산 전경을 담은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인다.

여기에는 지리산이 품고 있는 남원신계 리마애여래좌상, 구례 연곡사, 구례 화암사, 남원 실사상, 하동 쌍계사 등 지리산과 어우러진 장엄한 불교 유산을 담은 작품도 선보여 불자들의 눈길을 끈다. 인문과

자연 사생과 사의를 그림 속에 함께 담아내고 싶었다는 작가는 평지에 위치한 실사상을 그리기 위해 20년을 기다렸고 쌍계사는 15년만에 다시 그려냈다. 그리고 이런 작품 뒤에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담아내고 싶은 작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사찰을 그리다 보면 가람의 배치 건축물 탑 등 정확하게 그려내야 할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또 저의 시각으로 풀어내야 하는 작가적 사명도 있죠. 이 두 개를 조율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불교 문화재를 온전히 그림으로 남겨 세상에 회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이 터오는 맑은 첫새벽의 기운부터 하얀 달이 떠오르는 밤의 정취까지, 노란 산수유와 눈부신 벚꽃이 만발한 봄부터 흰눈에 덮여 꽁꽁 얼어붙은 겨울까지 지리산과 지리산이 품고 있는 다채로운 모습이 한눈에 조망된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산경을 돌아다니며 사찰과 그 주변풍경을 그려온 이호신 작가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스케치 화첩 50여권도 함께 전시돼 그간 작가의 노고를 엿볼 수 있다. 유료 전시로 입장료는 성인 8000원, 학생 3000원이다. (02)733-198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호신 작가의 '구례 화암사'. 작가는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 200여 점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선원예술단 월드투어 공연

4월 5일~16일 전국 5개 도시서

선원예술단 2013년 월드투어 공연이 4월 5일~16일까지 서울 비롯한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린다. 선원예술단은 뉴욕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로 중국고전무용과 음악을 함께 보여주는 공연단이다. 2007년부터 공연을 시작해 매년 평균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300여회 이상 공연을 펼치고 있다. 신과 인간 영웅과 총신이 남긴 가슴 벅찬 이야기들, 천재 예술가들

이 남긴 문예작품들, 북방의 광활한 몽골 초원에서 풍요로운 수렵까지 다양한 소재들을 공연무대로 펼친다.

△4월 5일, 대구 수성아트피아 옹지홀 △4월 9일,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 △4월 11일, 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4월 13일,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월 15일, 서울 상명아트센터 계당홀 등에서 각각 공연이 진행된다. 1588-8808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귀갑문(龜甲文)→육각수문(六角水文)

길상 의미 보다 생명의 근원 '상징'

한국의 미술작품 뿐만 아니라 동양의 수많은 미술작품에서 자주 만나는 육각형은 그 중요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특히 연결하는 육각형은 매우 중요한데 별집이 그려져 별집모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학자들은 귀갑문(龜甲文)이라 하여 논문이나 일반인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어서 아무도 그 용어를 의심하지 않는다.(그림①) 태어나서부터 그런 용어를 듣고 배우니 그 용어가 틀렸다고 하면 화가 내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귀갑문의 대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거북 등 무늬를 길상문(吉祥文)이라 부르는 까닭은, 거북이가 장수의 덕을 가진 생물이기 때문이다. 육각형은 견고하게 연결할 수 있으니 거북 등의 무늬와 같으므로 귀갑문이라 부른다. 귀갑문 안에 꽃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화귀갑문(花龜甲文)이라 부른다.”

장수의 상징으로만 여겨 온 문양

즉 육각형은 거북 등의 무늬로 보고 그 연결하는 무늬를 길상문을 나타내는 귀갑문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거북 등은 모두가 육각형이 아니다. 실제로 거북 등의 등을 살펴보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 다양한데 거북 등을 그릴 때 육각형으로 연결하여 가능하므로 그런 조형들을 머리에 입력하여 인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육각형이나 연결한 육각형 무늬를 보면 무조건 귀갑문이라 부르고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지나가고 만다.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에서 아니 세계에서 육각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상징성을 추구해 본 분이라면 절실하게 느낄 것이다. 육각형은 물이 구조이다. 겨울에 내리는 하늘에 가득 찬 모든 눈의 형태가 육각형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안 깨질 것이다. 바로 그 물은 만물생명의 근원이다. 육각형 또한 만물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래나 도(道), 그리고 태극 등 만물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인류가 그 만물의 근원을 보아도 표현한 것들이 바로 용(龍)이요, 영화시킨 연화(蓮花)요, 연결한 육각형(六角形) 등이다. 그런 고차원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단지 막연한 길상을 상징하는 거북의 등 무늬라고 하니 조형뿐만 아니라 사상의 중요한 면을 상실하고 만다.

고구려 벽화에서 우리는 수많은 육각형의 구조를 보아온다. 덕화리 벽화에서처럼 천정에 육각형의 구조를 그려놓고 그

육각형에서 영기문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간단한 구조는 벽면을 운동 육각형을 연결하여 놓고 그 육각형 마다 연꽃을 그려 넣은 도상이다. 졸본의 미창구 벽화나 평양의 산연총이나 귀갑총 벽화 등의 예가 바로 그렇다. 그것은 '물에서 연꽃이 피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연꽃 대신 육각형 안에 보주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귀갑문이라 부르니 조형을 읽을 수 없다. 더 깊이 해석하면, 무덤(소우주) 안에 그런 무늬로 가득 채운 것은 생명생성의 극치를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우주에 충만한 대생명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귀갑문이라는 아무 의미 없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 육각은 물의 구조이며, 물의 화학적 고리가 육각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귀갑문이란 용어가 잘못 된 것이므로 그 용어를 폐기처분하면 용어가 없어져 버리므로 내가 용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무늬의 상징도 처음으로 밝혔고 따라서 그 용어가 틀리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기 때문에 내가 시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단지 육각이라고만 하면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 육각은 물을 상징하므

거북 등 육각형 연결 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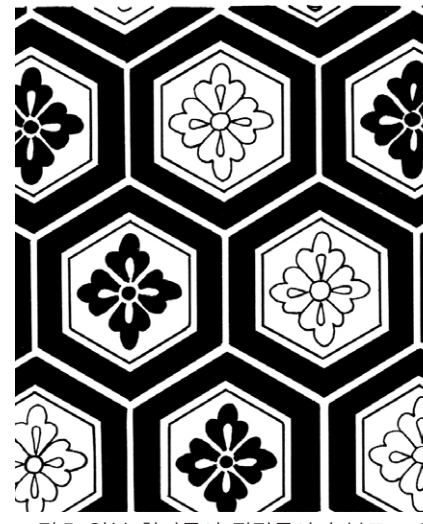
물의 구조 생명 상징

귀갑문은 육각수문이라 불러야

로 육각수(六角水)라 부르면 가장 확실하다. 육각이란 말과, 그 말이 상징하는 물이 합성하여 완벽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귀갑문을 '육각수문(六角水文)'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물' '바다' '생성' 등으로 의미 확장

그 육각수문 안에는 연꽃이나 보주를 표현한다. 통일신라 말에 세워진, 제천 월광사 원랑선사탑비(圓禪禪師塔碑,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음)의 용부(龍趺)의 등을 보면 육각수문(실제로 육각형은 아니나 그런 의도로 조각한 것) 각각 안에 보주꽃이 있다.(그림②) 그것은 물 가운데 보주가 가득 차 있다는 의미이다. 보주꽃에 대하여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가가미 신사 소장 수월관음 고려 불화에서는 관음보살이 차마를 입고 있는데 육각수문 안에 연꽃을 그려 넣었다.(그림③) 그러므로 '물에서 핀 꽃' 이지만 다시 이것을 더 자세히 해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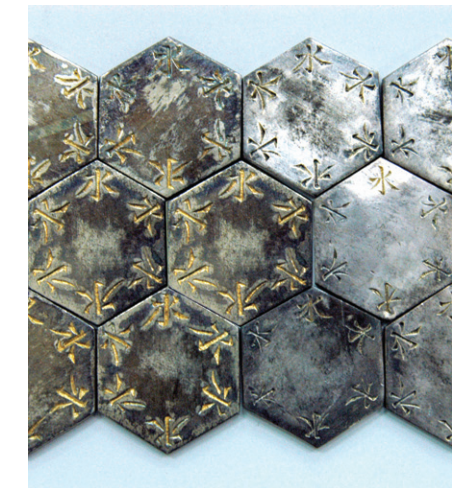
그림① 일본 학자들이 귀갑문이라 부르고 안에 꽃이 있으면 화귀갑문이라 부른다. 둘 다 틀린 용어다.



그림③ 가가미 신사 소장, 고려 수월관음도의 차마



그림② 월광사 원랑선사탑비의 등 무늬



그림④ 근정전에서 발견한 자를 새긴 육각형 은판들

면 '영수(靈水)에서 탄생한 태극'이다. 차차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귀갑문이란 용어가 분명히 틀렸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고종 때 중건한 경복궁 근정문(勤政門)에서 발견한 상량문과 함께 발견한 작은 육각형으로 만든 은판들이다.(그림④) 처음에 이들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따로 따로 벌려 놓으며 전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연결하여 전시하라고 의견을 냈더니 지금은 연결하여 전시하고 있다. 그 까닭은 육각형 모서리마다 물 물을 새기고 금을 칠했는데 연결하여 놓으면, 물 자 세 개를 합친 글자가 된다. 그 글자를 육판에서 찾아보면 淼(모)자가 되며 그 의미는 "수면(水面)이 아득하여 넓은 모양"을 의미하니 바로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나무 목자 셋을 합치면 森(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목조로 지은 궁전에 화마(火魔)가 덮치면 바닷물로 그 무서운 화마를 진압할 수밖에 없다.

사진은 내가 모든 은판을 연결하여 촬영한 것이다.

조형미술의 모든 장르, 조각-건축-회화-단청-건축-복식 등에는 육각무늬가 수없이 많다. 가장 중요한 조형이며 가장 중요한 상징을 띤 육각형이 연결하는 모양을 이제는 더 이상 귀갑문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육각수문! 관찮은 용어 같지만 좀 더 적당한 용어가 생각되면 주저 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 귀갑문을 육각수문이라 부르면 세계의 무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늬의 문제가 쉽게 풀리고 조형미술의 차원이 더 높아진다. 틀린 용어 바로잡기는 그 중요성이 역사를 바꿀 만큼 막중하므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용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강우방 (일할 한국미술연구소장)

초절전형 슈퍼에너지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지열히트펌프 냉 난방 기름값의 90% 절감
 월난방비 40평 약 15만원(겨울철 기준)

난방모드: 겨울철 외기에 의해 차가워진 실내공기를 땅속의 따뜻한 지열을 이용하여 난방
 냉방모드: 여름철 외기에 의해 더워진 실내공기를 땅속의 차가운 지열을 이용하여 냉방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다?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10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5,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성불의 지름길!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모든 법문을 뛰어넘는다!"

상중하 모든 근기가 두루 이익을 보고, 착수하기 쉽고 성공을 높이며, 힘 적게 들고 효과 빠르며, 만 가지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수행법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들이 권한 원통圖의 묘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46배판 | 양장 | 2도 | 808쪽 | 38,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대승경전과 정토종 및 선종 조사의 염불법문 총망라
 흥미진진하고도 상세한 주석으로 염불에 대한 확신과 방향 제시!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 거사님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무려 808쪽에 달하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염불, 그중에서도 주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청명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고귀한 말씀들을 회집총집에 놓았다. 방대한 주석에는 살며 시랑하고, 염불하며 깨달아가는 구도자들의 생활 속의 수행지침과 감동적인 예화, 역사적인 영험록이 가득하다.

출판 및 법공영(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 비움과소통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로 보인 **신문염송 21**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공경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공경한 33가지

031-534-3373